

 PLUS ETF

2026.09

시장이 따라온다
안목은 앞서간다

PLUS VIEW

PLUS ETF가 제안하는 전략투자 솔루션

CONTENTS

01	Cover story	04
	발해를 꿈꾸며_넓어지는 AI의 투자영토	
02	Market Insight	10
	주식시장 급락, 그 후	
03	Monthly Spotlight	14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합종연횡의 현장	
04	Deep Dive	20
	SK하이닉스 x 샌디스크 HBF 표준화 공동 발표	
05	Market Snapshot	24

발해를 꿈꾸며_ 넓어지는 AI의 투자영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가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지출(CapEx)을 이끌며 관련 산업의 실적과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이 특정 업종과 종목에 집중될수록 자금 역시 일부에 쏠리며 변동성을 키웠고, 빅테크의 자금조달 지속 가능성과 순환출자식 투자 구조(순환경제) 조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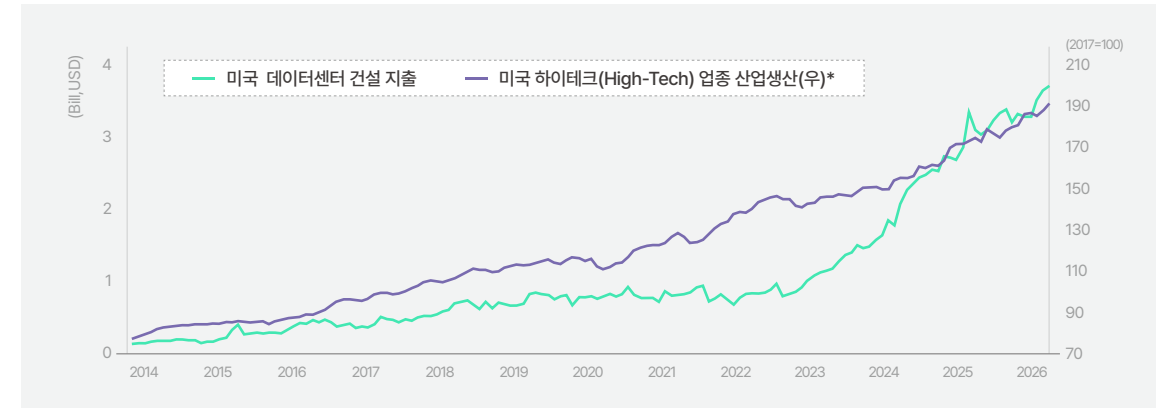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AI 투자 사이클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여러 자본지출 사이클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대한 흐름임은 분명합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넘어 전력망 확충, 발전 설비 투자, 제조업 리쇼어링, 국방·산업 인프라 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는 이 변화의 중요한 촉매이지만, 그 배경에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이끄는 생산과 인프라 투자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자산운용

* 하이테크 업종은 미국 연준이 분류한 첨단기술 제조업으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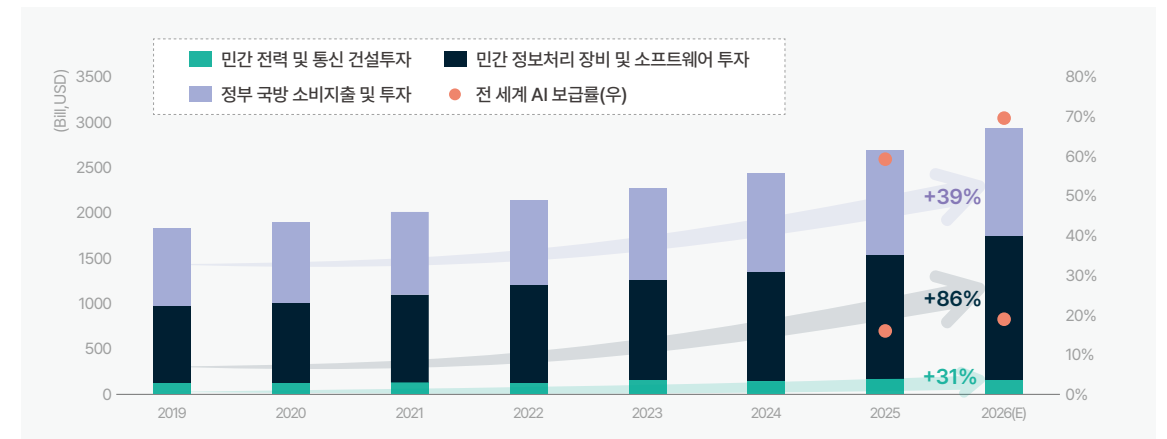
과거 기업의 자본지출은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 투자로, 예상 수요와 투자수익률(ROI) 즉, 경기와 금리 전망 등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습니다. 반면 최근의 투자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며, 핵

심 원자재를 내재화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선택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보가 곧 산업정책인 환경에서는 일부 AI 투자가 둔화되더라도 제조업·국방·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며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보급 확대와 전략산업 투자 증가

자료: Microsoft, FRED, 한화자산운용

* AI 보급률은 147개 국가 최고/평균 수치(최고: UAE 70.1%, 평균: 19.1%)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AI와 산업 인프라라는 두 성장축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력 인프라, 원자력이나 태양광 같은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원, 핵심 소재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는 동시에, 공급망 내재화 및 국가 주도 산업투자에서도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는 AI를 대체하는 투자가 아니라 AI를 가능하게 하는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들 기업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의 '삼과 곡괭이'로서, AI 자본지출이 둔화되더라도 정책 기반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앞서 언급한 자금조달·투자구조 리스크 현실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실물 인프라 축은 포트폴리오의 방어선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운 AI 스토리에 집중되어 있지만, 길게 보면 서방의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국내 전력기기·원전·방산 산업은 생산기지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경기민감주가 아니라 산업정책의 지속적 수혜 업종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이끈다면, 제조업 인프라와 국방은 그 성장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축입니다. 발해가 고구려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 넓은 영토를 개척했듯이 AI라는 영토 역시 데이터센터의 경계를 넘어 실물경제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기회는 AI와 실물경제, 그리고 국가 산업정책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PLUS K방산

▶ 투자 포인트

- 1. 신냉전 시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확대 흐름
- 2. 내수 산업을 넘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K방산
- 3. 가격·성능·납기 경쟁력을 갖춘 K방산 대표기업 10종목 집중 투자

구성종목 TOP10 ※ 상기 비중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준일 : 2026.8.14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4%	6	한화시스템	7.5%
2	한화오션	18.7%	7	풍산	1.9%
3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15.8%	8	STX엔진	0.6%
4	현대로템	15.3%	9	SNT다이내믹스	0.5%
5	한국항공우주	14.9%	10	엠앤씨솔루션	0.2%

ETF 개요

구분	내용
상품명칭	PLUS K방산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449450
기초지수	FnGuide K-방위산업 지수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연)	0.5063% (집합투자: 0.405%, 지정참가회사: 0.005%,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563%)
상장일	2023년 01월 05일



PLUS 글로벌원자력밸류체인

▶ 투자 포인트

- 1. AI 시대, 늘어나는 전력 수요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한 '원자력'
- 2. 미국의 원전 재가동·증설 흐름, 밸류체인 전반으로 번지는 투자 기회
- 3. 우리농 채굴부터 원전 설비·건설·유지보수까지, 밸류체인 전 구간 투자

구성종목 TOP10 ※ 상기 비중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준일 : 2026.8.14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플루오르	19.6%	6	센트리스에너지	7.1%
2	카메코	18.7%	7	뉴스케일파워	6.9%
3	BWX테크놀로지	16.3%	8	에이콘 그룹	5.9%
4	우라늄에너지	11.0%	9	나노뉴클리어에너지	2.2%
5	스프룻피지컬우라늄신탁	10.7%	10	우르-에너지	1.0%

ETF 개요

구분	내용
상품명칭	PLUS 글로벌원자력밸류체인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0007G0
기초지수	Solactive Global Nuclear Energy Value Chain Index(PR)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연)	0.549% (집합투자: 0.339%, 지정참가회사: 0.001%, 신탁: 0.03%,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159%)
상장일	2025년 01월 14일



연금저축 100%
퇴직연금 70%

415920

PLUS 글로벌희토류& 전략자원생산기업

▶ 투자 포인트

- 1. 미·중 패권 경쟁과 자원안보 강화에 따른 희토류·전략자원의 무기화
- 2. 미국·중국·호주 등 전략자원 공급망의 핵심 생산기업에 집중 투자
- 3.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략자원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구성종목 TOP10

* 상기 비중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준일 : 2026.8.14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VANECK 희토류ETF	24.8%	6	중국북방희토	5.3%
2	앨버말	6.1%	7	퀴미카 이 미네라	4.2%
3	PLS그룹	5.8%	8	진두이청 몰리브덴	4.1%
4	라이너스희토	5.5%	9	샤먼 텅스텐	4.1%
5	MP머트리얼즈	5.4%	10	알몬티인더스트리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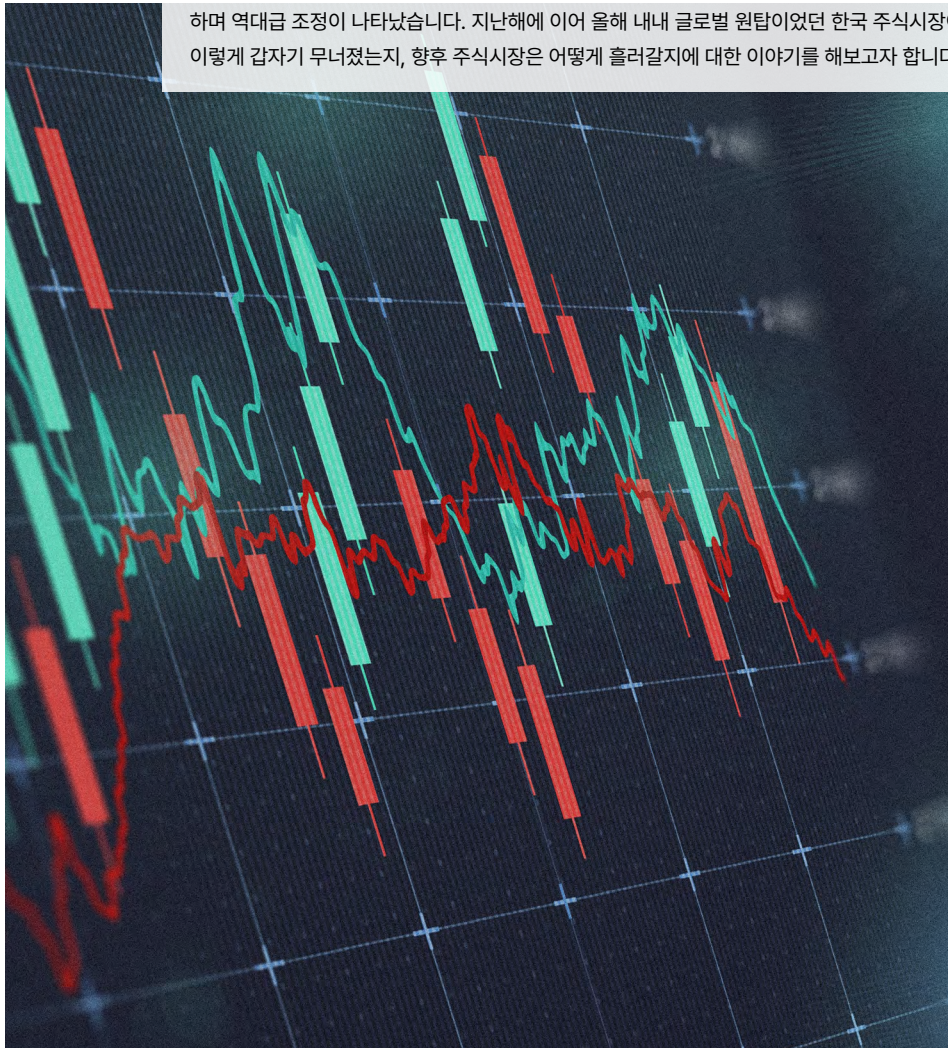
ETF 개요

구분	내용
상품명칭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415920
기초지수	MVIS Global Rare Earth/Strategic Metals Index (Price Return)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연)	0.7823% (집합투자: 0.455%, 지정참가회사: 0.005%,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2823%)
상장일	2022년 01월 18일



주식시장 급락, 그 후

6월22일 9,114pt였던 KOSPI 지수가 7월30일 5,593pt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39%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55% (6월25일 2,917,000원 ▶ 7월30일 1,322,000원) 급락하며 역대급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내 글로벌 원탑이었던 한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는지, 향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빨랐나

이번 조정의 특징은 낙폭 자체도 금융위기급이었지만 무엇보다 속도가 전례 없이 빨랐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조정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반면, 이번에는 대응할 틈도 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인으로서는 ①반도체 고점론, ②중동정세 재악화에 따른 유가상승·금리인상 우려 ③역대급 급등 이후 기술적 부담과 수급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등의 열쇠,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해소

이 중 가장 핵심은 '반도체 피크아웃' 판단이었습니다. 8월 들어 글로벌 AI·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이 우려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 8월 둘째 주, 네오클라우드 업체인 코어위브(CoreWeave)와 네비우스(Nebius)의 실적이 AI 수요의 견조함과 수익성 개선 속도를 확인시켜 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 샌디스크(SanDisk)는 인베스터데이에서 높은 마진율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조만간 상장 예정인 앤트로픽(Anthropic)의 예상 기업가치도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엔비디아가 GPU 컴퓨팅 자원에 대한 금융조달(파이낸싱) 구조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8월 둘째 주부터 긍정적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며 코스피는 어느새 7,000pt대까지 회복했습니다.

펀더멘털만큼 중요한 것, '변동성'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인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펀더멘털 외적 요인인 '변동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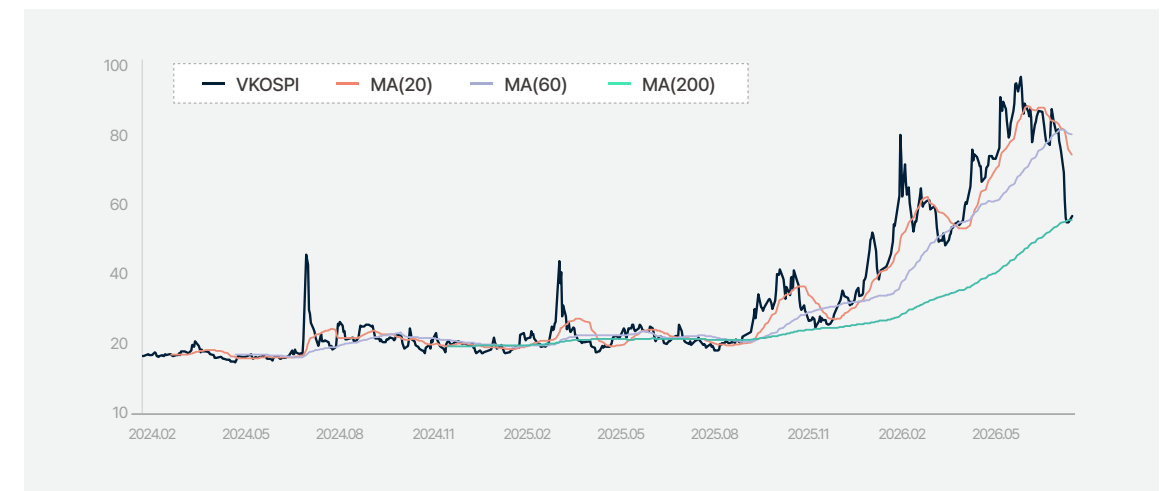
과거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투자 의사결정에서는 '기대수익률'이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였습니다. 즉 특정 종목에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업계의 무게중심이

'리스크 예산(Risk budgeting)'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대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변동성(위험도)이 커지면 포지션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는데,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급증한 변동성 부담 때문에 포지션을 줄인 물량이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OSPI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 지수(국내 증시의 '공포지수')

자료: 블룸버그



VKOSPI 지수는 올 초 30수준에서 6월 말 97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랬던 VKOSPI가 8월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대 수준은 높지만, 이 같은 변동성 축소는 '감내할 만한 리스크 수준'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외국인 자금 복귀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월의 급락은 펀더멘털 우려 뿐 아니라 레버리지 수급의 급증, 그와 연계된 포지션 청산이 맞물리며 증폭된 측면이 컸습니다. 최근에는 펀더멘털 개선 기대와 함께 변동성 축소에 따른 수급 완화까지 겹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은 부담 요인이지만, 현재로서는 지수의 추가 반등 여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PLUS K제조업 핵심기업액티브

▶ 투자 포인트

- 1.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 제조 동맹'의 핵심 파트너, K제조업
- 2. 반도체·에너지·방산·로봇 등 AI 핵심 병목 및 국가안보·전략산업 관련 국내 대표기업에 투자
- 3.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 산업과 기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액티브 전략 상품

구성종목 TOP10 ※ 상기 비중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준일 : 2026.8.14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SK하이닉스	24.7%	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7%
2	삼성전자	23.9%	7	SK스퀘어	3.3%
3	삼성전자우	6.1%	8	두산	3.0%
4	삼성SDI	4.5%	9	LG에너지솔루션	2.9%
5	LS	3.8%	10	두산에너빌리티	2.6%

ETF 개요

구분	내용
상품명칭	PLUS 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0166S0
기초지수	Akros K제조업 50 지수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총보수(연)	0.63% (집합투자: 0.589%, 지정참가회사: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상장일	2026년 03월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합종연횡의 현장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여러 기업의 협약 체결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협력 확대,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장기 협력 계획이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팀 SK'와 비(非)엔비디아 기업들과 연합한 '팀 삼성'의 합종연횡 구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고성장 산업에서는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팀 삼성과 팀 SK 가운데 승자를 고르기보다, 메모리 기업을 바스켓으로 편입해 AI가 견인하는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성장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등 연합' 팀 SK: HBM 1위와 AI 가속기 1위의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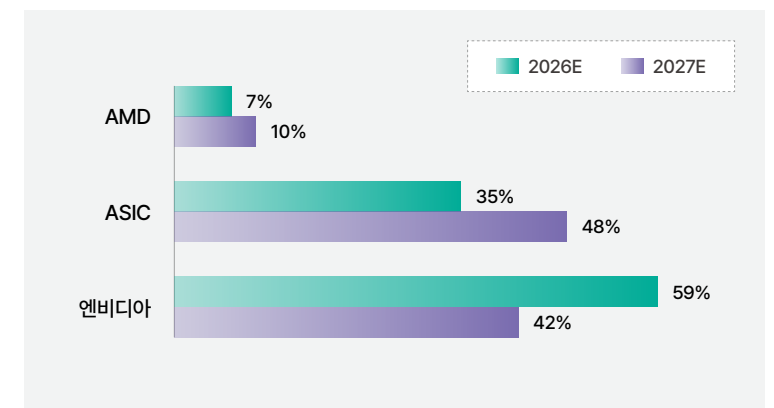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엔비디아는 HBM 수요 점유율 1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JP모건에 따르면 올해 엔비디아의 HBM 비트 수요 점유율은 59%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 수요 점유율 (2026~2027년)

자료: JP모건 (bit 기준 수요 점유율 추정치)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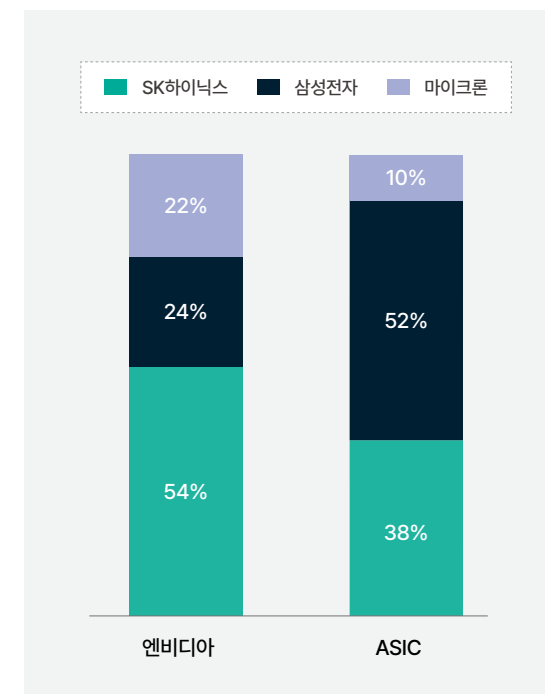
SK하이닉스는 HBM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와 샌프란시스코에서 AI 메모리 분야의 장기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AI 메모리 공급뿐 아니라 AI 팩토리 구축까지 아우르는 5천억 달러 이상의 LOI(의향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향후 양사의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 1위 고객과 구축한 견고한 협력 관계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HBM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HBM 공급 점유율 (엔비디아 vs ASIC)

자료: JP모건 (2026년 추정치)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라이징 스타' 팀 삼성: 수요 증가세가 가파른 비(非)엔비디아 진영과의 협력

같은 시기 샌프란시스코의 또 다른 현장에서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양사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커스텀 반도체(ASIC) 시장을 대표하는 브로드컴과의 협력 확대는 엔비디아와 장기 협력을 약속한 SK하이닉스와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지난 3월 발표된 AMD와의 협력까지 함께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비엔비디아 진영' 공략 전략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의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되며 HBM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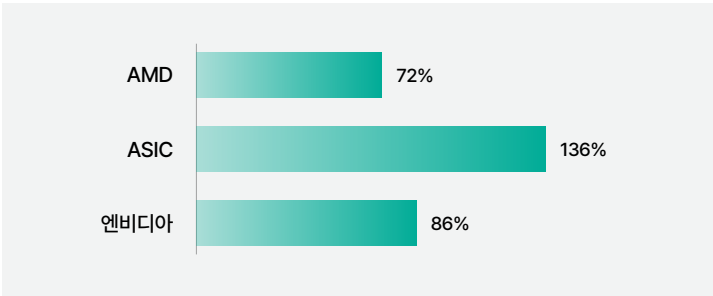
엔비디아 외 AI 가속기 진영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HBM 수요 증가율에 있습니다. ASIC의 HBM 비트 수요 점유율은 엔비디아보다 낮은 30%대이지만, 수요 증가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JP모건은 2024~2027년 브로드컴 등 ASIC용 HBM 비트 수요가 연평균 136% 성장해, 엔비디아 수요 증가율의 약 1.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HBM 수요 연평균 성장률 (2024년~2027년 CAGR)

자료: JP모건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이에 따라 2027년 ASIC의 HBM 비트 수요 점유율은 전년 대비 13%p 확대되며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일부 잠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SIC 관련 노출도가 높은 삼성전자는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메모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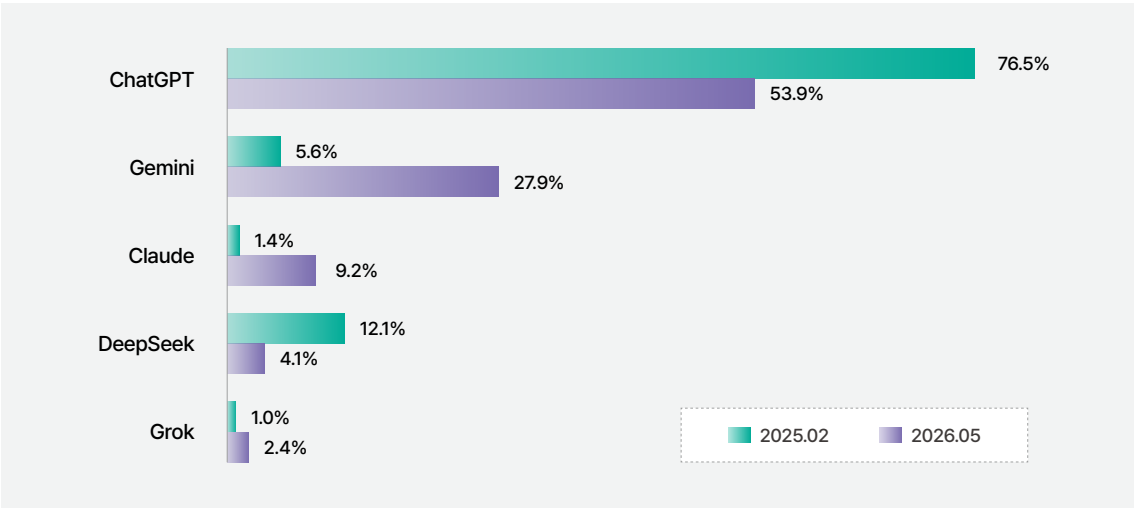
‘와일드 카드’ 마이크론: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AI모델 기업과의 연합

시장 과반을 차지한 선두 기업과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추격하는 경쟁 구도는 AI 챗봇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026년 5월 기준 웹사이트 방문자 수 점유율은 ChatGPT 54%, Gemini 28%, Claude 9%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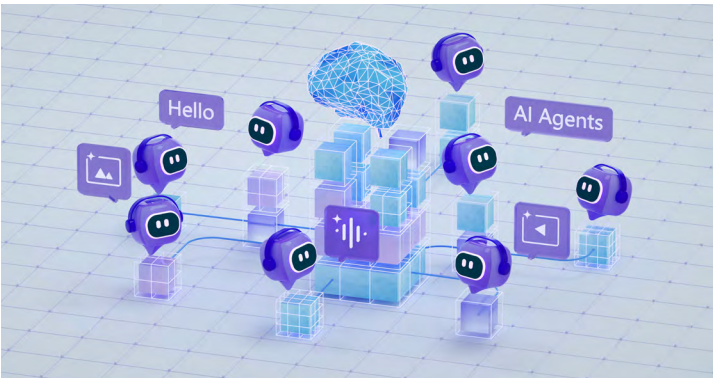
AI 챗봇 시장점유율 (2026년 5월 기준)

자료: Similarweb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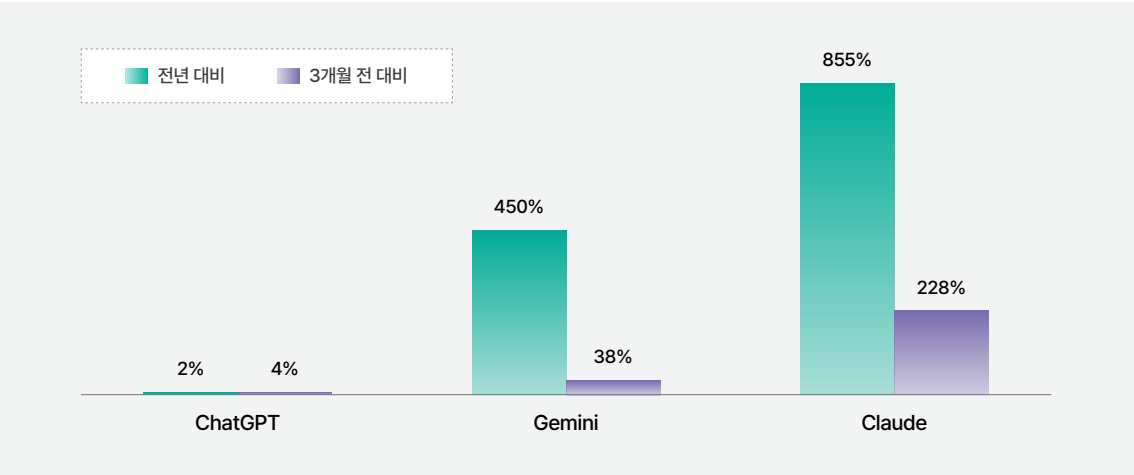
ChatGPT는 여전히 2위 Gemini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Gemini와 Claude의 성장으로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Claude의 성장세가 두드러 집니다. Claude의 2026년 5월 방문자 수는 3개월 전보다 228%, 전년 동기보다 855% 증가했습니다.



Top 3 AI 챗봇 성장률 (2026년 5월 기준)

자료: Similarweb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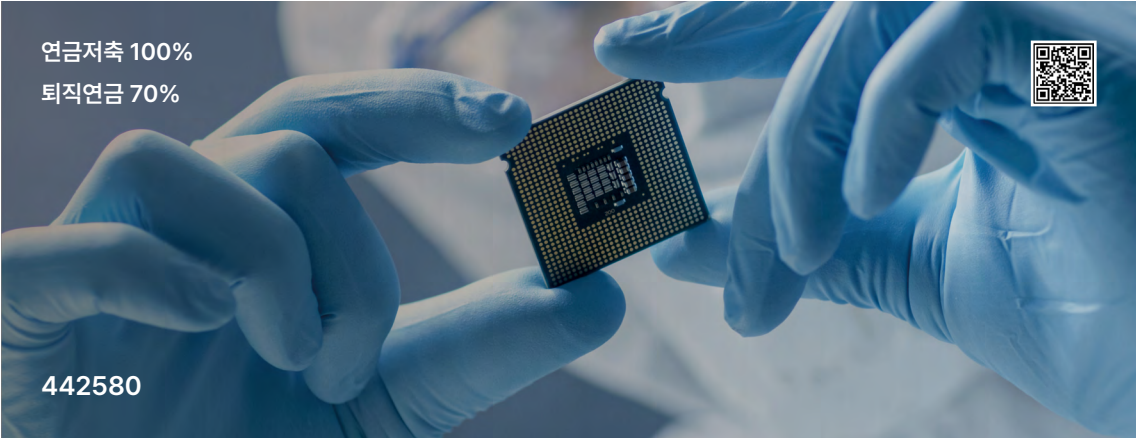


마이크론은 빠르게 성장하는 Claude의 개발사 엔트로픽과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협약에는 AI 아키텍처 공동 설계, 지분투자, 다년간의 메모리 제품 공급 계약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집중하는 고객 군과는 또 다른 접근입니다.

이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서로 다른 고객군을 중심으로 각자의 전략적 연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업의 전략이 가장 큰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승자 예측보다 산업 성장에 투자

1년 전 Claude의 급격한 부상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듯,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에서도 최종 승자를 정확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정 기업의 승리에 베팅하기보다 산업 전체의 구조적 성장에 투자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4사를 담고 있는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이러한 관점에서 AI가 견인하는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성장에 포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PLUS 글로벌HBM반도체

▶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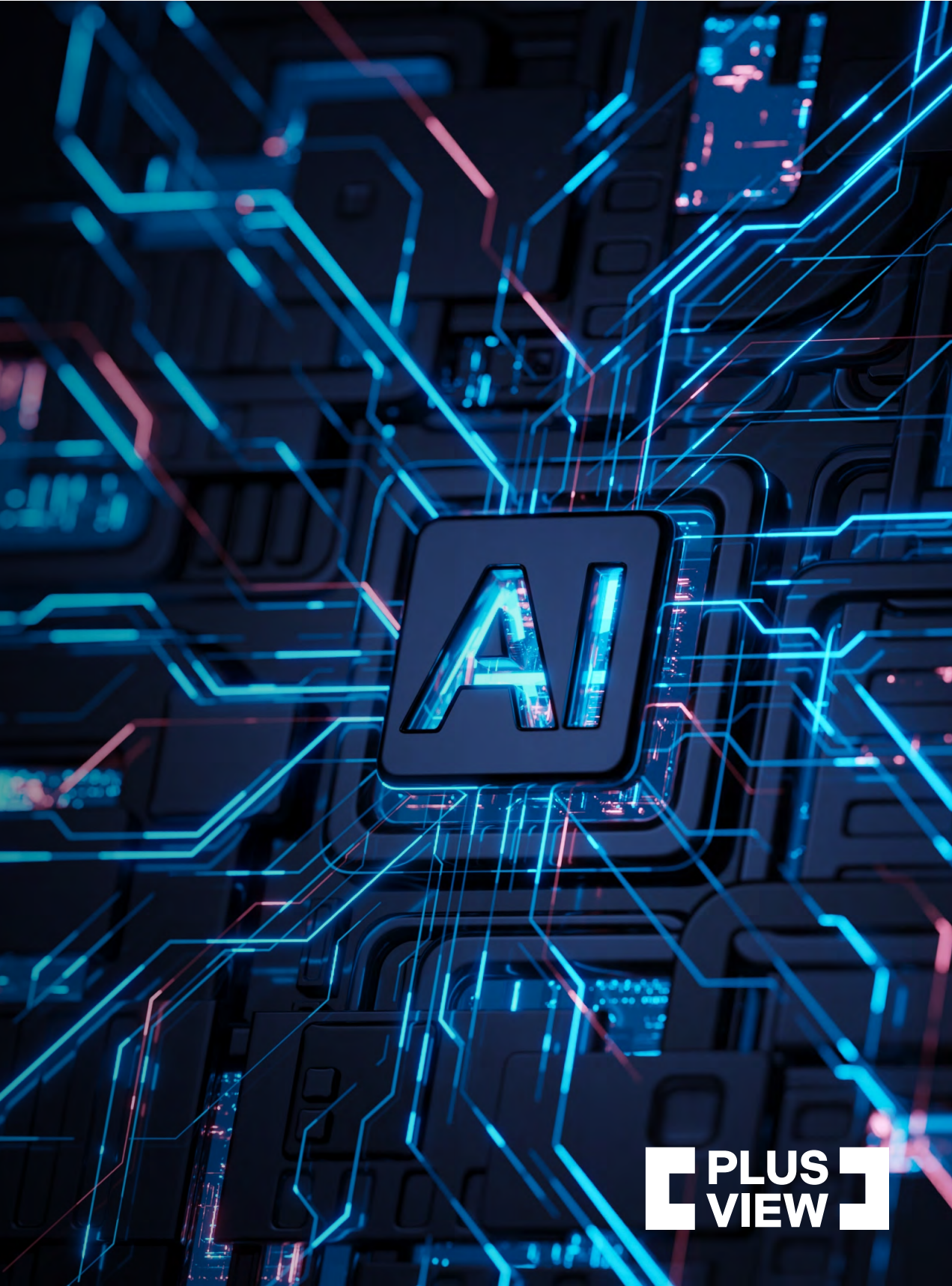
- 1. 전통적 사이클 산업에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전환 중인 메모리
- 2. AI발 수요 성장과 장기공급계약으로 수익 안정성 확보
- 3. 글로벌 DRAM 시장을 과점하는 메모리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 집중투자

구성종목 TOP10 * 상기 비중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준일 : 2026.8.14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삼성전자	26.4%	6	샌디스크	4.6%
2	마이크론	25.5%	7	테라다인	1.4%
3	SK하이닉스	23.6%	8	디아이	0.6%
4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	9.2%	9	테크윙	0.6%
5	램리서치	9.1%	10	한미반도체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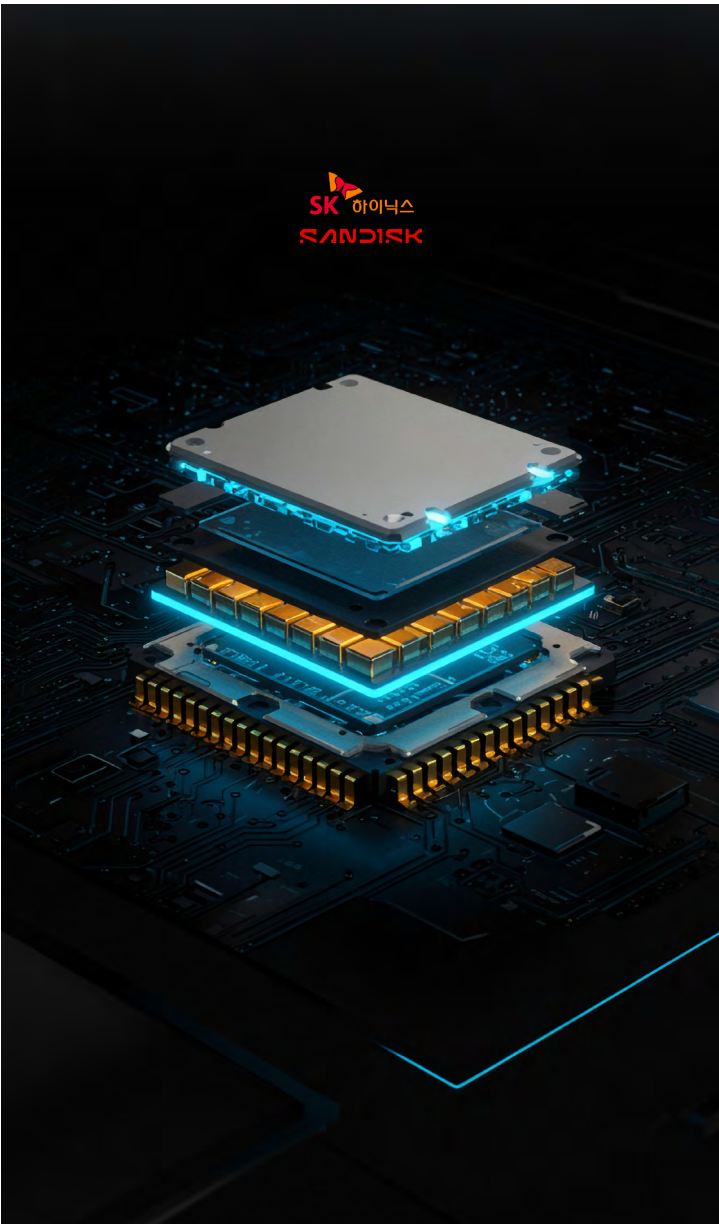
ETF 개요

구분	내용
상품명칭	PLUS 글로벌HBM반도체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442580
기초지수	iSelect 글로벌 HBM반도체 지수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연)	0.6641% (집합투자 0.46%, 지정참가 0.005%, 신탁 0.01%, 일반사무 0.025%, 기타비용 0.1641%)
상장일	2022년 09월 22일





SK하이닉스 x 샌디스크 HBF 표준화 공동 발표



2026년 8월 4일,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FMS(Future of Memory and Storage) 2026”에서 첫 HBF 표준 규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격 발표라기보다 향후 HBF 시장을 어떤 기업이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글로벌 최초로 HBM을 개발, 이후 HBM4 개발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 기준 글로벌 HBM시장의 58%를 점유하는 압도적인 HBM 선두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최초로 기술을 표준화하고 완성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향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NAND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두 기업이 공동 규격을 제시한 이번 발표를 통해, 향후 HBF 시장에서 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HBM과 HBF의 차이

자료: SK하이닉스 뉴스로, 샌디스크, 한화자산운용 | *HBF는 표준화 규격 발표 기준



구분	HBM4	HBF*
기반 반도체	DRAM	NAND
강점	빠른 송수신 속도	큰 저장 용량
송수신 속도	1억분의 1초(빠름)	100만분의 1초(느림)
스택당 용량	64GB	512GB(8배)
저장 비용	스택 당 높은 저장 비용	HBM 대비 저렴한 저장 비용

HBF(High Bandwidth Flash)는 지금까지 주류 반도체였던 HBM(High Bandwidth Memory)과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반도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DRAM과 NAND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DRAM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 하는 강점이 있고, NAND는 송수신 속도는 DRAM 보다 느린 대신, 큰 용량을 저장하는 데 강점을 가진 반도체입니다.

DRAM을 수직으로 적층한 반도체인 HBM은 GPU 바로 옆에서 빠르게 연산·추론을 수행하는 역할을, HBF는 NAND를 수직으로 적층해 기존의 느린 송수신 속도를 보완하고 큰 저장 용량이라는 장점을 유지해 HBM의 저장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HBF는 송수신 속도가 낮은 대용량 저장장치와 저장 용량이 낮은 HBM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AI 차세대 핵심 메모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HBF(High Bandwidth Flash)는 AI 서비스가 확장될수록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AI 시장의 중심이 ‘학습’ → ‘추론’ → ‘에이전트’로 발전하며 요구되는 반도체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AI ‘학습’ 시대의 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직렬’연산 반도체보다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병렬’연산 기반의 GPU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론’ 시대부터는 AI 모델이 추론 관련 거대 규모 데이터를 빨리 ‘읽는’ 성능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GPU의 방대한 연산 능력보다 빠른 데이터 송수신 능력이 필요했고 HBM이 주류 반도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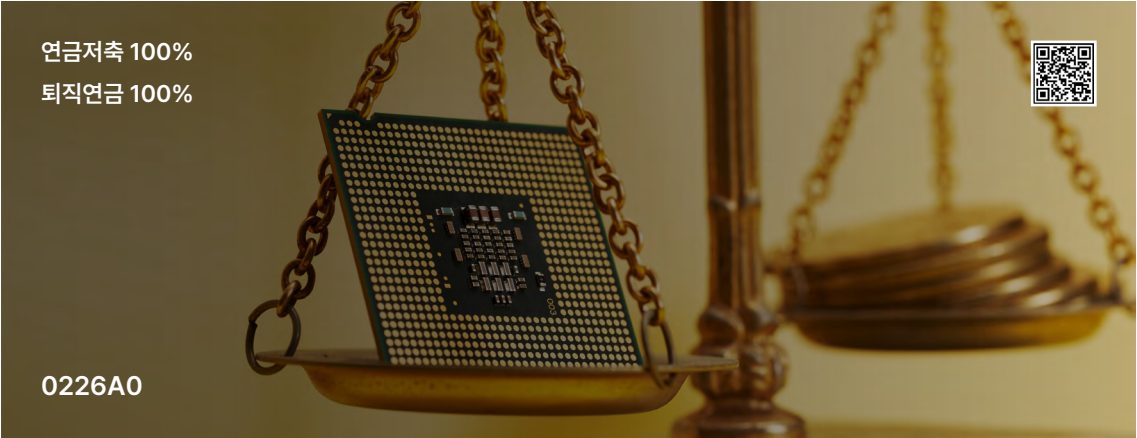
이제 AI 서비스의 흐름은 사용자의 업무, 일상을 처리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추론’과 다른 점은, 사용자의 긴 대화와 문맥 그리고 행동 패턴 등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HBM은 송수신 성능은 우수하지만 저장 용량이 낮아 가격 대비 낮은 효율을 내고, SSD와 같은 대용량 저장장치는 용량은 크지만 송수신 성능이 낮아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HBF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NAND를 다중 적층하여 SSD의 낮은 송수신 성능을 극복하고, 저장용량을 극대화하여 HBM 대비 더 높은 저장 용량을 갖춘 ‘가성비’ 메모리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시대와 HBF의 수요 증가는 예상 가능한 거대한 흐름이며, ‘SK하이닉스 x 샌디스크 HBF 표준화 공동 발표’는 흐름 속 투자 결정에 힌트가 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산(GPU)에서 추론(HBM-DDR)을 지나, 저장(NAND)으로

자료: 한화자산운용





PLUS SK하이닉스샌디스크 채권혼합50

▶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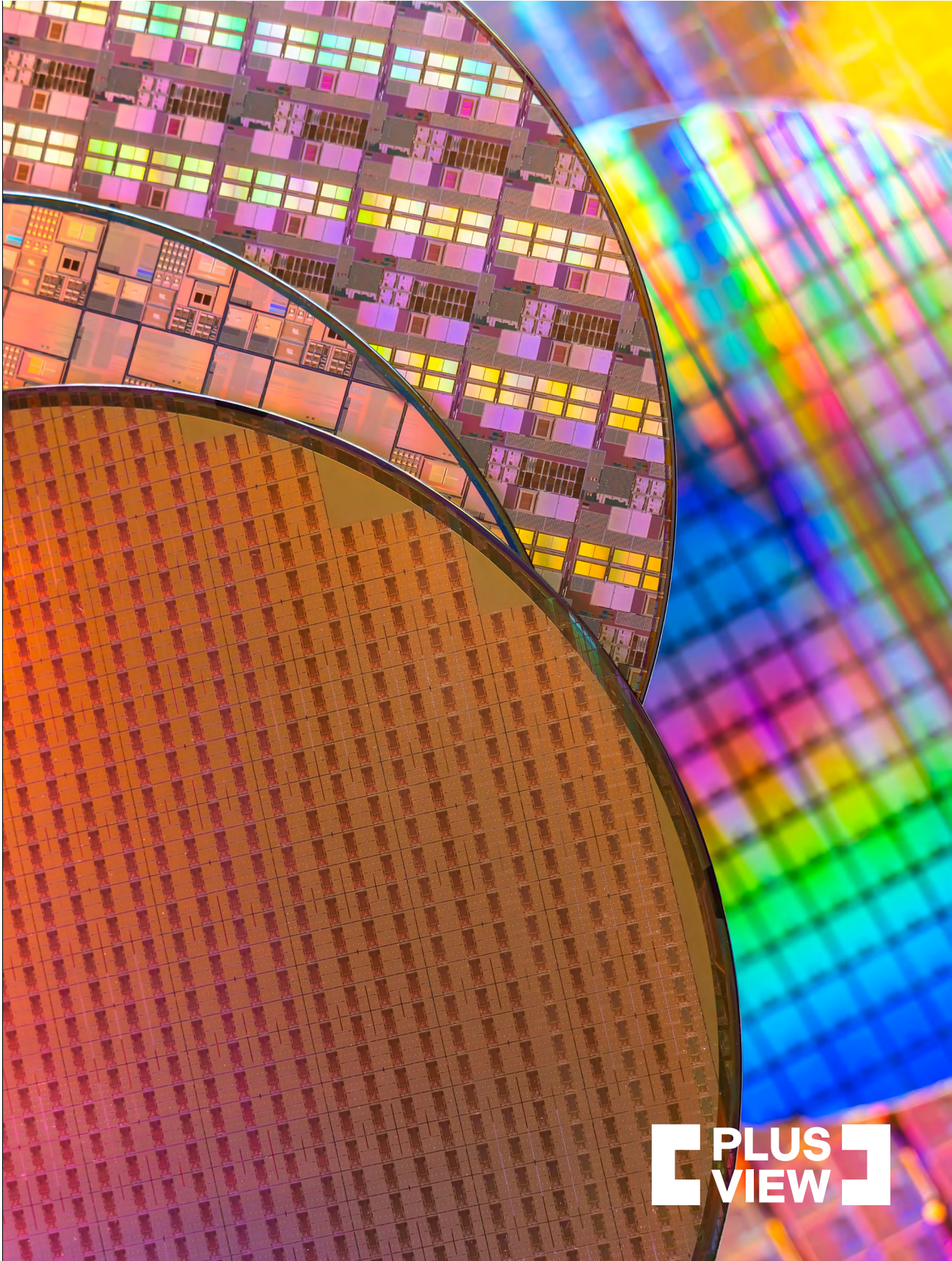
- 1.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 수혜
- 2. HBM-DRAM의 SK하이닉스와 NAND-SSD의 샌디스크에 집중 투자
- 3. 국고채를 편입해 변동성을 낮추고 퇴직연금에서도 100% 활용 가능한 채권혼합 상품

구성종목 TOP10 * 상기 비중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준일 : 2026.8.14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샌디스크	25.7%	6	PLUS 국채선물3년	9.1%
2	SK하이닉스	19.8%	7	SK하이닉스선물2609	4.4%
3	국고채권03375-3103(26-3)	12.3%	8	KODEX 국고채3년	1.1%
4	국고채권02750-2812(25-10)	12.3%	9	TIGER 국채3년	1.1%
5	국고채권02250-2806(25-4)	12.3%			

ETF 개요

구분	내용
상품명칭	한화 PLUS SK하이닉스샌디스크채권혼합50(채권혼합)
종목코드	0226A0
기초지수	Akros SK Hynix SanDisk Treasury Balanced50 Index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총보수(연)	0.25% (집합투자 0.224%, 지정참가 0.001%, 신탁 0.015%, 일반사무 0.01%)
상장일	2026년 08월 0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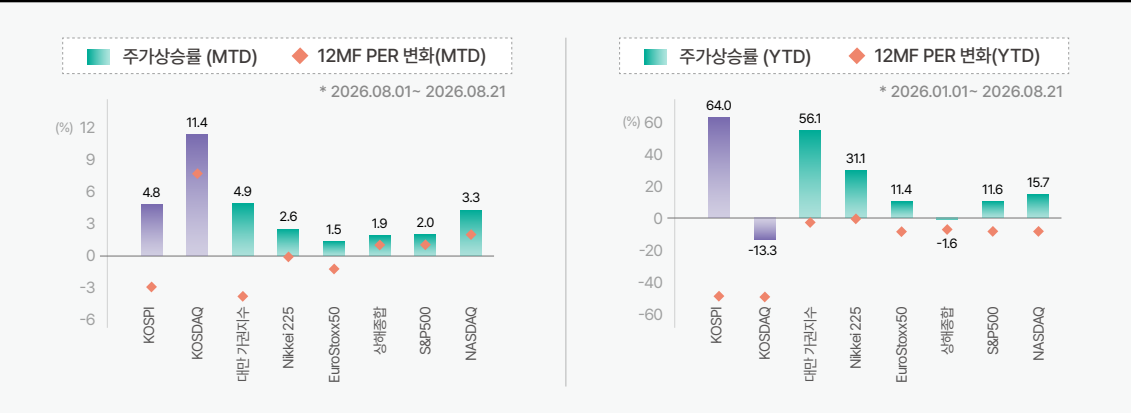


PLUS 8월 ETF 스냅샷

글로벌 주요 지수 수익률 & ETF 시장 요약

8월 글로벌 주요 지수 수익률

자료: 블룸버그



- 과도하게 조정받던 KOSPI(월초대비 +4.8%) 및 KOSDAQ(월초대비 +11.4%) 지수의 반등
- KOSPI의 YTD 성과(+64%)는 타 주요 지수 대비 우월하며, 반도체 관련 산업 노출도가 큰 대만의 가관지수 또한 +56.1%로 높은 수익률 기록

8월 신규상장 ETF

자료: Fnguide
* 2026.8.21 기준

No.	종목명	AUM (억원)
1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2,990
2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706
3	PLUS SK하이닉스샌디스크채권혼합50	545
4	마이티 AI데이터센터밸류체인	132
5	WON 피지컬AI TOP2플러스액티브	98
6	RISE 미국우주위성통신	93
7	HANARO 미국S&P500액티브	84
8	FOCUS 금융반도체지주채권혼합50액티브	80

▲ 8.21 기준 8월 신규 상장 종목은 총 8개이며, 이 중 반도체 관련 ETF가 4개로 가장 많음

8월 해외증권 순매수 TOP10

자료: 예탁결제원 Seibro
* 2026.8.20 기준

No.	종목명	순매수대금 (백만달러)
1	VANGUARD SP 500 ETF	141
2	INVESCO NASDAQ 100 ETF	140
3	PROSHARES ULTRA QQQ ETF	138
4	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	125
5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110
6	INVESCO QQQ TRUST SRS 1 ETF	107
7	ISHARES SEMICONDUCTOR ETF	93
8	DIREX DAI SEMI BE 3X ETF	61
9	J.P. 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F	61
10	SPDR PORTFOLIO SP 500 ETF	56

▲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지수(레버리지 포함), 배당·인컴, 반도체 관련 상품 위주로 투자. 예탁결제원 해외 순매수대금 TOP10 중 지수형(레버리지 포함) 5종목, 배당·인컴형 2종목, 반도체 관련 2종목

자료: Fnguide | 2026.08.01~ 2026.08.21

ETF Market Money Flow

국내상장 ETF 순자산 증감

* 2026.8.21 기준

AUM(조원)	종목수(개)	순자산증감(조원)			
		1주	월초대비	연초대비	1년
451.8	1,161	-10.5	17.3	153.5	224.8

8월 순자산 증가 TOP10

No.	종목명	AUM증가 (억원)
1	KODEX 200	21,679
2	TIGER 반도체TOP10	9,087
3	TIGER 200	7,066
4	KODEX 미국나스닥100	6,829
5	TIGER 미국S&P500	6,816
6	KODEX 코스닥150	6,439
7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5,303
8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4,873
9	KODEX 반도체	4,364
10	TIGER 미국나스닥100	4,290

8월 거래대금 TOP10

No.	종목명	거래대금 (억원)
1	KODEX 200	291,955
2	KODEX 레버리지	274,882
3	KODEX 인버스	167,770
4	TIGER 200	127,530
5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117,793
6	TIGER 미국S&P500	112,110
7	KODEX 200선물인버스2X	105,535
8	KODEX 코스닥150	76,377
9	KODEX 미국S&P500	70,764
10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64,667

8월 개인순매수 TOP10

No.	종목명	순매수대금 (억원)
1	TIGER 미국S&P500	4,478
2	KODEX 미국나스닥100	2,750
3	KODEX 미국S&P500	2,511
4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2,001
5	TIGER 미국나스닥100	1,978
6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1,070
7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997
8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763
9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748
10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636

8월 개인순매도 TOP10

No.	종목명	순매도대금 (억원)
1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773
2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2,695
3	KODEX 레버리지	-2,179
4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864
5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883
6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678
7	KODEX 코스닥150	-441
8	KODEX 200	-392
9	KODEX 머니마켓액티브	-226
10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5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ETF거래 총 보수 이외에 증권거래비용 및 기초지수사용료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가능 합니다.
- 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커질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의 운용전략이 구체화된 자산구성내역(PDF)를 한국거래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ETF의 기초지수는 사업보고서, 조사분석자료 등 지수산출업자가 선정한 테마 관련 키워드를 바탕으로 관련도가 높은 종목을 선정하나 테마 내 선정된 종목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 실제 실적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성과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주)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6-505호 (2026.08.25~2027.08.24)

더 자세한 상품 정보는
PLUS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lusetf.co.kr



FUTURE
INSIGHT

